

전체주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을 함

메세지 1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성경: 벰전 1:2, 17; 2:21-25; 3:15; 4:12, 15-19; 5:5-8; 벰후 1:1-4; 3:13

- I.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관한 것이다:
- A.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을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벰전 1:2:
 - B.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신성한 공급과 신성한 통치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벰후 1:1-4, 3:13.
 - C.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통치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벰전 1:17, 4:17:
 - 1.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서신들에서 하나님과 주님의 심판은 본질적인 항목들 중 하나로써 거듭 언급된다—벰전 2:23, 4:5-6, 17, 벰후 2:3-4, 9, 3:7.
 - 2. 여러 종류의 심판을 통해 주 하나님은 온 우주를 깨끗하고 순수하게 하시어, 그분의 기쁨을 위해 그분의 의로 가득한 새로운 우주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신다—벰후 3:13.
 - D. 베드로전서 1 장 17 절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수행하시는 심판은 장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통치적으로 다루시는 현재의, 매일의 심판이다:
 - 1. 아버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거룩한 아버지와 거룩한 자녀들로 이루어진 거룩한 가족을 산출하셨다—벰전 1:3, 15, 17.
 - 2. 거룩한 자녀들로서 우리는 거룩한 생활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벰전 1:15-16).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 안에서 심판관이 되시어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다루실 것이다—벰전 4:15-17, 히 12:9-10.
 - E. 하나님의 통치에서 징계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벰전 4:17:
 - 1.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벰전 1:17.
 - 2.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적인 행정의 심판을 위해 불같이 혹독한 시련을 사용하심으로 믿는 이들을 다루시며, 이러한 심판은 그분 자신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벰전 4:12, 17.
 - 3. 이러한 심판의 목적은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다—벰전 4:6.
- II. 베드로는 그의 서신들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를 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하나님의 통치가 한 짝으로 함께한다는 것을 제시한다—벰전 1:17, 2:21, 24, 3:15, 4:17, 5:5-8:
- A. 삼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긴 과정을 통과하심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것이다—요 1:14, 14:17, 고전 15:45 하, 6:17.
 - B. 동시에 삼일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우주의 통치자이시다—벰전 4:19.

C.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되었고 새 창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 창조물 안에 있다—요 1:12-13, 3:3, 5-6, 고후 5:17:

1.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름이 필요하다—벧전 1:17.

2.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자라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징계가 필요하다—벧전 2:2, 4:17, 벧후 1:5-7.

III.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인간 생활을 하였고,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 의 통치에 맡기셨다—요 6:38, 벧전 2:21-24:

A. 주님은 그분 자신께서 받으신 모든 모욕과 상처를, 의롭게 심판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신 의로우신 하나님께 계속 맡기셨고,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주님은 이러한 의로우신 분을 신뢰하셨고 그분의 통치를 인식하셨다—벧전 2:23.

B.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 조언하셨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접촉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속 부분들이 하나님과 하나였고 그분은 그분의 속 부분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으셨다—시 16:7, 사 50:4.

메세지 2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함

성경: 벰전 1:6-8, 17; 4:13-19, 5:6

- I.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한다—요 3:15, 1:12-13, 벰전 4:13-19, 5:6-8.
- II. 베드로의 서신들은 많은 고난을 통해 집행되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룸을 능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벰전 1:6-8, 2:3-4, 19, 21-25, 3:18, 22, 4:1, 15-16, 5:8-9.
- III.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져야 한다—벰전 5:6:
 - A. 베드로전서 5 장 6 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손을 가리킨다—벰전 1:17, 4:17.
 - B.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겸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운행과 협력하여, 그분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기꺼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한다—벰전 5:6.
- IV.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련을 인하여 근심하게 될 것이며 믿음의 시험을 체험할 것이다 - 1:6-7:
 - A. 6 절에서 시련은 믿는 이로써 우리의 생명의 자질을 시험하는 고난이다.
 - B. 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입증하기 위하여 즉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 벰전 2:19-23; 3:14-18.
 - C. 베드로 전서 1 장 7 절의 강조점은 믿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오는 시련으로 믿음을 시험함에 있다.
- V.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뵈는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도 그분을 뵈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찬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 벰전 1: 8:
 - A. 믿는 이들이 보지 못한 분을 사랑하는 것은 놀랍고 비밀스런 것이다.
 - B. 우리는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주입된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해(갈 3:2) 우리가 보지 못한 그분을 사랑한다 - 갈 3:2.
 - C. 이 믿음은 베드로 전서 1 장 7 절에 언급되어 있는 시련, 즉 시험 아래 있다.
 - D. 영광으로 가득찬 즐거움은 영광 안에 잠긴 즐거움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표현되심으로 가득 찬 즐거움 이다 - 갈 3:8.
- VI. 우리는 우리의 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한다—벰전 4:19:
 - A.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보존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에서 그분의 애정 어린 신실한 돌봄은 그분의 공평함 과 더불어 수행된다.
 - B.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 안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계시는 동안에도 사랑 안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는 그 분의 징계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의 혼을 우리의 창조주의 신실한 돌봄에 맡겨야 한다—마 10:28, 11:28-29.
- VII.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죄들을 향하여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의를 향하여 살 수 있다—벰전 2:24:

- A. 하나님의 통치는 의위에 세워진다(시 89:14 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
- B. ‘의를 향하여 산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요구들을 이루는 것과 관련된다 — 벰전 2 : 24
1.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의롭게 살도록, 즉 하나님의 통치의 의로운 요구들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살도록 구원받았다.
 2.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죄들에서 분별되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살아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의를 향하여 살게 된다—롬 6:8, 10-11, 18, 엡 2:6, 요 14:19, 딤후 2:11.

메세지 3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

성경: 벰전 2:25; 시 23:3 상; 마 11:28-30; 빌 2:2; 3:1 상

- I.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 벰전 2:25.
- II.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감독하시며 우리의 내적인 존재에 속한 상황들을 돌보신다:
 - A.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목양은 주로 우리의 혼을 돌본다 — 시 23:3.
 - B. 그리스도는 우리의 혼의 복지를 돌보심과 우리의 내적 존재의 상태를 감독하심으로써 우리를 목양하신다 — 비교 히 13:17.
 - C. 이러한 종류의 목양은 내적이며 내재적이며 유기적인 위로이다.
- III. 우리의 혼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 안에서 우리를 목양하여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문제들과 필요와 상처들을 돌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 요 14:16-17, 고전 15:45 하, 6:17:
 - A. 우리의 공기 같은 영이신 목자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우리를 돌보신다:
 1. 그리스도의 목양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혼의 모든 부분으로 퍼진다.
 2.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혼의 모든 부분에 도달하시며 부드럽고 유기적이며 모든 것을 포함한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 B. 이것이 거듭난 믿는 이들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하나님의 내적인 목양이다.
- IV. 우리의 혼의 목자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혼을 소생시키신다 — 시 23:3 상:
 - A. 우리의 혼이 소생되는 것은 우리가 부흥되는 것을 의미한다.
 - B. 우리의 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또한 새롭게 됨과 변화를 포함한다 — 롬 12:2, 고후 3:18.:
- V. 우리의 혼의 목자로서 주님은 우리의 혼에 안식을 주신다 — 마 11:28-30:
 - A. 주님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며 또한 어떤 일에서 성공하려고 힘쓰는 이들에게 그분에게 와서 안식하도록 부르신다 — 마 11:28.
 - B. 이 안식은 율법이나 종교 혹은 어떤 일이나 의무로 말미암은 수고와 짐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온전한 평안과 충만한 만족을 가리킨다.
 - C.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 마 12:50.
 - D. 주님은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의해 제한받으며 아버지의 뜻만 주의하시는 그러한 생활을 사셨다 — 요 4:34, 5:30, 6:38.
 - E.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만족하셨고 마음에 안식이 있으셨다.
 - F.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서 배움으로써 찾을 수 있는 안식은 내적인 안식, 우리의 혼을 위한 안식이다 — 마 11:29-30.
- VI. 주님께서 우리의 혼을 목양하시고 우리의 혼을 소생시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뿐 아니라 그분을 누린다 — 빌 2:2, 3:1 상:
 - A.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주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문제이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우리의 혼 안에 있는 문제이다 — 빌 1:27, 2:2.

- B. 우리의 혼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만 가질 수 있다.
- C.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우리의 입맛은 주로 우리의 혼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혼의 각 부분, 특히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우리를 목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 D.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누림을 가지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안에서도 그분과 하나되어야 한다 — 빌 1:27, 2:2: 8:

메세지 4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됨

성경: 벰전 1:15, 2:12, 21, 롬 8:29, 갈 2:20, 4:19, 엡 3:16-17 상

- I.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된다—벰전 2:21.
- II. 주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신 생활은 하나의 본이며, 우리는 그분의 재생산이 됨으로써 그분의 발자취에 따라 이 본을 따른다—벰전 2:21-23, 엡 4:20-21.
- III. 베드로전서 2장 21 절의 '본'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글씨 쓰기를 가르칠 때 사용한 원본 혹은 습자첩으로, 학생들이 글씨를 배울 때 밑에 놓고 글자를 따라 쓰는 글씨본을 가리킨다:
 - A. 주 예수님은 그분의 생활을 우리 앞에 글씨본으로 세우시어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밟아 따라감으로써 그분의 생활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하셨다—마 11:28-30.
 - B.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모방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방이 아닌 재생산이다—롬 8:29, 고후 3:18.
- IV.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풍성과 연관된 과정에 의해 그리스도의 재생산,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이 완성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될 것이다—요 3:15, 엡 3:8.
- V.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고, 우리 속에 형상을 이루시며,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는 분으로 체험해야 한다—갈 2:20, 4:19, 엡 3:16-17 상:
 - A.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와 깊이 연관되신다는 것을 계시한다—갈 1:16, 골 3:10-11.
 - B.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곧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신다—고전 15:45 하, 갈 2:20:
 1. 하나님의 경륜은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활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요 14:19.
 2.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고, 주님과 한 생명을 가지며, 이제 주님과 한 인격이어야 한다—고전 6:17, 골 3:4, 빌 1:21 상.
 3.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할 필요가 있다—요 14:16-19, 갈 2:20.
 - C.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형상을 이루시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자라시도록 하는 것이다—갈 4:19:
 1. 그리스도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 안으로 태어나셨고, 그런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 안에서 사시며, 결국 우리가 성숙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형상을 이루실 것이다—요 1:12-13, 3:15, 갈 2:20.
 2.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형상을 이루시도록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께서 우리 내적 존재의 각 부분을 점유하시도록 허락해 드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라시도록 하는 것이다—골 2:19, 엡 4:15-16.
 3.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형상을 이루시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유기적으로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있는 것을 함축한다—골 3:10-11.

4. 갈라디아서 4 장 19 절의 '형상이 이루어지다'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3 장 18 절의 '형상'이라는 말과 일치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형상을 이루심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갖고 그분을 표현할 것이다.
- D.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 속에 형상을 이루고 계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고 계신다—엡 3:16-17 상:
1.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 마음의 모든 부분으로 확장되기를 갈망하신다.
 2.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더 확장되실수록, 그분은 더욱더 우리 안에 정착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적 존재의 모든 부분을 점유하시며, 이러한 부분들을 소유하시고 그분 자신으로 적시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하신다—엡 3:19 하.
- E.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 속에 형상을 이루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된다—롬 8:29, 12:4-5, 계 21:2.